

실리콘 인터포저(Si Interposer) 및 유기 인터포저(O

v1.0 | 2026-05-28 | Cressem 기술연구소

[기술 분석 보고서] 차세대 패키징을 위한 인터포저 기술 비교: Silicon vs. Organic

1. 개요 (Executive Summary)

반도체 미세 공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칩과 칩 사이의 연결 밀도를 높이는 **Advanced Packaging(첨단 패키징)** 기술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HBM(High Bandwidth Memory)과 고성능 컴퓨팅(HPC)용 GPU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두 개의 다이(Die)를 연결하는 **인터포저(Interposer)**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본 보고서는 현재 업계 표준인 **실리콘 인터포저(Silicon Interposer)**와 차세대 대안으로 주목받는 **올가닉 인터포저(Organic Interposer)**의 구조, 물리적 특성, 공정 방식 및 장단점을 심층 비교 분석합니다.

2. 실리콘 인터포저 (Silicon Interposer)

2.1 정의 및 구조

실리콘 인터포저는 반도체 웨이퍼 제조 공정(FEOL/BEOL)을 그대로 활용하여 제작된 인터포저입니다. TSV(Through Silicon Via, 실리콘 관통 전극) 기술을 통해 상단의 칩과 하단의 패키지 기판 사이를 수직으로 연결합니다. 주로 CoWoS(Chip on Wafer on Substrate) 공정의 핵심 요소로 사용됩니다.

2.2 주요 특징 및 기술적 메커니즘

- TSV(Through Silicon Via) 활용:** 수 마이크로미터(μm) 단위의 미세한 구멍을 뚫어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므로, 매우 높은 입출력(I/O) 밀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 Fine Pitch 구현:** 실리콘 공정의 미세 패턴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Bump Pitch를 $40\mu\text{m}$ 이하로 낮추는 것이 가능합니다.
- CTE(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적합성:** 칩(Silicon)과 인터포저(Silicon)의 열팽창 계수가 동일하여, 온도 변화에 따른 열 변형 및 휨(Warpage) 문제가 매우 적습니다.

2.3 장단점 분석

구분	장점 (Pros)	단점 (Cons)
성능	초미세 피치(Fine Pitch) 구현 가능, 신호 무결성(Signal Integrity) 우수	-
신뢰성	칩과 동일한 CTE로 열적 안정성 매우 높음	-
비용/수율	-	고가의 웨이퍼 사용, TSV 공정의 복잡성으로 인한 높은 제조 원가
크기	-	Reticle Limit(노광 한계)로 인해 대면적화(Large Size)에 제약 존재

3. 유기 인터포저 (Organic Interposer)

3.1 정의 및 구조

유기 인터포저는 실리콘 대신 유기 절연물(ABF: Ajinomoto Build-up Film 등)과 구리(Cu) 배선을 사용하여 제작되는 인터포저입니다. 기존 PCB(Printed Circuit Board) 제조 기술을 고도화한 형태로, 최근 2.5D/3D 패키징에서 비용 절감과 대면적화를 위해 급격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3.2 주요 특징 및 기술적 메커니즘

- **Build-up 공정:** 유기 절연층을 쌓고 그 위에 회로를 형성하는 적층 방식을 사용합니다.
- **RDL(Redistribution Layer, 재배포선층) 기술:** 실리콘의 TSV 대신, 유기물 층 위에 미세한 RDL을 형성하여 신호를 재배포합니다.
- **Large Area 구현:** 웨이퍼 단위가 아닌 패널(Panel) 단위 공정이 가능하여, 대형 인터포저 제작에 유리합니다.

3.3 장단점 분석

구분	장점 (Pros)	단점 (Cons)
비용	실리콘 대비 재료비 및 공정 비용이 현저히 낮음	-
크기	Reticle Limit에서 자유로워 대면적(Large Die) 구현 용이	-
성능	-	실리콘 대비 낮은 배선 밀도(Pitch 한계), 신호 손실 가능성
신뢰성	-	칩(Si)과 유기물 간 CTE 차이로 인한 Warpage(휨) 및 Crack 위험

4. 핵심 기술 비교 요약 (Comparative Analysis)

두 기술의 결정적인 차이는 '미세도(Density)'와 '경제성(Cost)'의 트레이드오프(Trade-off)에 있습니다.

비교 항목	실리콘 인터포저 (Silicon)	유기 인터포저 (Organic)
주요 소재	Monocrystalline Silicon	Organic Dielectric (ABF, PI 등)
연결 기술	TSV (Through Silicon Via)	RDL (Redistribution Layer)
최소 피치 (Pitch)	매우 미세 ($< 10\mu\text{m}$ 가능)	상대적 높음 ($> 20\sim 40\mu\text{m}$)
열팽창 계수 (CTE)	$\approx 2.6 \text{ ppm}/^\circ\text{C}$ (칩과 일치)	$\approx 12\sim 17 \text{ ppm}/^\circ\text{C}$ (칩과 불일치)

제조 공정	Front-end 반도체 공정 기반	Back-end/PCB 공정 기반
적용 타겟	HBM3/4, 초고성능 AI 가속기	중고성능 서버, 모바일 AP, 대면적 패키지

5. 결론 및 향후 전망

5.1 기술적 과제

1. **실리콘 인터포저:** 제조 원가 절감과 Reticle Limit을 극복하기 위한 **Stitching 기술**(여러 개의 노광 영역을 이어 붙이는 기술)의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2. **올가닉 인터포저:** 실리콘 수준의 미세 피치를 구현하기 위한 **Ultra-fine RDL 공정 확보**와, CTE 차이로 인한 **Warping 제어 기술**이 상용화의 핵심입니다.

5.2 종합 전망

현재 AI 반도체 시장의 폭발적인 수요로 인해, 극강의 성능이 요구되는 영역(HBM-GPU 결합 등)에서는 **실리콘 인터포저 기반의 CoWoS 기술**이 지배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도체 성능의 상향 평준화와 비용 효율성이 중요해지는 시점에는, 대면적화와 저비용 구현이 가능한 **올가닉 인터포저(또는 Glass Interposer 등 차세대 소재)**가 시장의 상당 부분을 점유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크레셈(CRESSEM)은 이러한 인터포저의 미세 배선 및 TSV/RDL 구조 내 결함을 검출하기 위한 **고해상도 광학 검사 솔루션 및 AI 기반 비전 알고리즘**을 통해 차세대 패키징 공정의 수율 확보에 기여할 것입니다.

본 보고서는 일반적인 반도체 패키징 기술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고객사의 공정 사양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